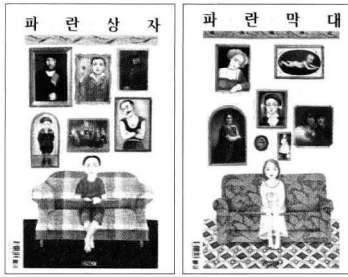


아홉 살 선물, 내 뿌리 찾는 타임머신



내 뿌리를 찾아가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아홉 살 생일에 각각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막대와 상자를 선물받은 클라라와 에릭의 이야기입니다. 범상치 않은 선물을 통해 두 아이는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를 만나게 되지요. 각각의 취향대로, 성격대로 아홉 살 선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로잘리아는 연극을 좋아해 막대로 연극놀이를 하고, 발비나는 나무토막으로 배를 만들어 호수에 띄우지요. 한편 에릭은 막대와 관련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무뚝뚝하고 말없는 아버지의 다른 면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지그문트는 이 상자로 코끼리 인형의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거든요. 왼쪽으로 펼쳐 읽으면 클라라의 이야기, 오른쪽으로 펼쳐 읽으면 에릭의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형태로 된 책입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물건을 통해 낯선 과거여행을 떠난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파란막대·파란상자》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글·그림 | 이지원 옮김 | 사계절 | 56쪽 | 값 15,000원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나만의 비밀 놀이?



엄마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해봅니다. 엄마 옷장을 열고 엄마가 아끼는 예쁜 원피스도 입어봅니다. 립스틱을 발라 붉어진 입술로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시간도 가져봐야죠. 여자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엄마 놀이'. 이 책의 주인공 예준이도 엄마가 외출한 사이 엄마 옷장을 활짝 열고 신나는 패션쇼를 펼칩니다. 그런데 웬걸? 불현듯 찾아온 누군가의 방문에 비밀 놀이가 다 들통나는군요. 어른들 세계를 흉내내고 싶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세계를 잘 꿰뚫어 본 책입니다. 엄마옷을 입고 공주가 된 듯한 환상에 빠진 아이의 모습을 명랑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엄마 옷이 더 예뻐》황유리 글·그림 | 길벗어린이 | 30쪽 | 값 8,000원

목소리 놓고 내리신 분!



누군가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빨간 목도리. “웬 선물이야?”라며 그냥 슬쩍 가져갈 건가요? 그렇다면 정직한 택시 운전사 쥐돌이를 본받아야겠군요. 책임감 강한 쥐돌이는 목도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온갖 애를 쓰거든요. 심지어는 검은 사내를 찾아 들어가게 된 서커스장에서 외줄타기, 마술쇼까지 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도 이 노력 끝에 목도리를 주인 손에 잘 넘겨주게 되어 마음 뿌듯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없는 그림책. 파스텔, 색연필 등으로 연출한 신비한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글을 못텐 아이들도 상상하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쥐돌이 이야기를 앞에 놓고 나만의 해석을 시도해 보세요.

《빨간 목도리 가져가세요!》안느 빌뇌브 지음 | 꼬마이실 | 32쪽 | 값 8,800원

예민한 10대, 감성의 촉수 건드리는 심리 소설



첫사랑만큼 설레고 아름다운 추억이 또 있을까요. 이 책은 일상적으로 극도의 허무를 느끼는 고등학생 기지마와 시종일관 시니컬한 미노리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만년 후보 골키퍼라는 사실 때문에 극도의 허무감을 느끼는 기지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그림그리기. 기지마는 데생을 그리다가 매사에 시니컬한 무라타와 만나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냉정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미노리와 나약한 기지마의 연결고리, ‘그림’을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아이들의 소통공간으로 확장시킨 점에서 문학성이 돋보입니다. 일본 청소년 소설의 거장 사토 다카코의 글은 이와이 슈운지 풍의 일본영화와 일면 닮은 데가 있습니다. 감성의 촉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즉각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제대로 짚어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특히 짧고 간결한 1인칭 시점의 문장으로 두 아이의 심리를 좇는 대목들을 눈여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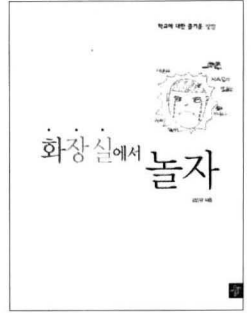
《노란 눈의 물고기》사토 다카코 지음 | 김신혜 옮김 | 뜨인돌 | 376쪽 | 값 9,800원

우리들의 화장실은 다르다구요!

한 아이가 슬며시 손을 듭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좋다”고 허락을 하긴 했지만 뭔가 찝찝하 시죠? 불일은 안 보고 담배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오히려도 하실지 모릅니다.

오해받기 쉬운 공간, ‘화장실’을 변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면중학교 학생들이 국어시간에 화장실 일기를 쓰고, 미술 시간에 화장실 꾸미기를 하면서 ‘화장실 프로젝트’란 사건을 저지른 과정들을 담은 책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화장실이 단순히 용변을 보는 장소 혹은 불순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그들에게 화장실은 지겨운 수업 시간을 틈타 친구와 수다를 떠는 우정의 장소, 음치인 친구들끼리 모여 거리낌 없이 노래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자신들의 비밀 공간! 이곳엔 의미들을 글로 옮긴 아이들은 이제 화장실을 꾸밉니다. 바닥에 색색의 종이를 붙이고, ‘화장실’이란 낱말을 “싸도되男?” “거울을봐女~”라는 경쾌한 표현으로 바꿔놓는 등 생활 미술교육 과정들이 소개되지요. 학교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잘 활용할 대안들을 제시한다는 데서 학생, 교사, 학교 모두가 참고하면 좋을 책입니다.



《화장실에서 놀자》김인규 지음 | 디딤돌 | 128쪽 | 값 8,000원

철학자들, 이런 행동은 좀 별나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림책 형식으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흥미롭게 정리한 이 책을 권합니다.

철학자 중에는 괴짜가 많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현실의 한계다”라고 말했던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원고를 금고에 넣고 다닐 만큼 비밀스럽게 행동했고, 2급류 카우보이 영화를 즐겨 보던 영화광이었다죠. 또한 헤겔은 지나치게 무겁고 지루한 강의로 유명했고, 40의 나이에 스무 살의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재미는 철학자들의 사상적 행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줌은 물론 그들의 개인사적 일화까지 흥미롭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철학공부 이전에 맛보기로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후반부에 ‘서양철학의 중요한 학파들’ 코너를 마련해 관념론, 유물론, 합리론 등을 주장했던 학자들과 그들의 사상도 소개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철학이야기》제레미 휘트 지음 | 피터 로만 그림 | 조광제 옮김 | 미래M&B | 64쪽 | 값 15,000원

다케루야! 네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죽은 자는 산 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떠납니다. “다케루가 죽었다”로 시작하는 이 책은 산에서 죽은 친구의 비밀을 캐내다가 진정한 우정을 깨닫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열세 살 친구들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함께 공을 차고 뛰놀던 다케루의 빈자리 때문에 힘겹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 다케루와 함께 산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지요. 소원을 이뤄준다는 천명수를 찾기 위해 산을 찾았던 그때가 그리운 아이들은 다케루를 묻고 온 그 산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케루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정과 꿈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책. 미국 영화 <스탠 바이 미>나 <구니스>처럼 로드무비 구조를 보여주는 후반부가 특히 재밌습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오리하라 미토 지음 | 홍성민 옮김 | 동쪽나라 | 176쪽 | 값 8,000원

고슴도치처럼 가시 돋은 마음, 우정으로 치유합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세계에도 사연은 있습니다.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는 아이,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매맞는 아이. 이 책은 상처가 많은 두 아이가 우정을 키워나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들을 차분하게 담아 냅니다.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나쁜 외계인들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됐다”고 말하는 착한 소년은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고슴도치처럼 돋은 자신의 마음 속 가시를 하나씩 버리게 되고 손이 아픈 아이 역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펼칩니다. 말미에 아동 학대 방지 대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한다는 데서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김청연 기자



《내 친구, 고슴도치》문선이 글 | 윤정주 그림 | 푸른숲 | 208쪽 | 값 8,500원